



압축근대화와 기능적 독서

홍재범 | 서원대 미디어창작과 전임강사

《근대의 책읽기》는 그 자체로 '미디어', 매개물로서 부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다. 한동안 필자는 책을 소중히 다루곤 하였다. 비록 돈을 지불하면 언제든지 새 것을 살 수 있는 대상이지만 여타의 단순한 물건, 상품과 동일한 존재가 아니었다. 심한 경우 책을 험하게 다루는 이들을 보면 왠지 거부감이 느껴지고 그 사람의 인격을 의심한 적도 있었다. 필자의 성향을 개인적인 기질로 간주하고 있었는데 박지원의 일화(171쪽)를 읽으면서 그렇지 않음을 깨달았다. 근대의 독서는 한마디로 정보나 재미를 얻기 위한 기능적 독서이다. 이와 달리 전통적 독서는 경전적 독서이다. 모든 경전은 성현의 말씀을 기록한 권위를 지니고 있어서 일개 독자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존귀한 대상이다. 따라서 효용이 다하면 용도폐기하는 먹물이 묻은 종이뭉치는 근대의 책이 아닌 것이다. 탈근대를 운운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필자는 책의 머리말부터 마지막 색인까지 통독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전통적 독서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근대의 책읽기》는 필자의 독서법을 무력화시키고 있었다. 흔히 일상적인 책은 저자의 주장을 일관되게 기술하여 독자로 하여금 그 논리에 공감하도록 노력한다. 그런데 이 책은 그러한 자리에서 있지 않다. 다만 너무나 익숙한 대상물인 '책'의 근대적 존재방식을 통해 한국근대문화사에서 문제적 시기인 1920~30년대에 접속하게 도와주는 '미디어', 매개물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관습적인 문학연구의 방식을 일탈하면서 복귀하고, 독서의 풍속사를 찬찬히 펼쳐 보이는가 하면 근대형성기 지식인들의 내면풍경을 훑쳐보기도 하면서 경계를 넘나든다. 이러한 경계를 가로지르기가 혼란을 일으키기보다는 당대의 문화적 여건을 다각도로 조망하면서 입체적으로 재구성한다. 따라서 읽는 이의 기대지평에 따라 다양한 지점에서 접속이 가능하지만 오해의 소지는 미약하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장 근대의 책읽기와 소설독자, 2장 근대독자 형성의 문화적 조건, 3장 1920~30년대의 책읽기와 문화의 변화, 4장 문학 독자층의 형성과 분화, 5장 책읽는 방법의 제도화와 문학사> 등이 그것인데, 각 장을 구성하고 있는 소제목들을 일별한 후에 독자의 관심에 부합하는 항목들을 앞뒤로 읽어 나가다 보면 어느덧 책 전반을 훑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전제

하고 있는 현상들의 이면과 근원을 들춰줌으로써 좁게는 20세기 문학사, 넓게는 문화사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유도한다는 사실이다. 현재 대학과 중등교육과정에서 권장되고 있는 문학정전들의 확립과정을 구체적인 자료들에 근거하여 재구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반독자에게는 너무나 낯설기만 한 1920~30년대 한국인의 삶의 단면들을 눈에 보이듯이 그려주고 있는데, 그 일상의 모습들이 오늘날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동질감과 시간의 거리감을 동시에 인식하게 한다.

먼저 시간의 거리감을 느끼게 만드는 대목 하나를 들자면 1929년 한 일간지에 여자들이 도서관에 출입하며 공부하는 일이 “최근에 기이한 사회적 현상”이란 기사가 실렸다는 사실이다. 막연하게 과거의 대다수 여성들은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였다는 추상적인 진술이 줄 수 없는 생생한 현실감을 환기시키는데 현재의 우리로서는 그 변화의 낙차를 통해 여러 가지 상념에 젖게 된다. 20세기 한국의 역사를 흔히 ‘압축근대화’라는 단어로 규정하기도 한다. 책읽기와 관련된 여성의 일상적 삶의 변화된 양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단어의 적실성을 실감하게 된다.

한편 문자 해독층이 폭발적으로 팽창하면서 함께 나타난 사회적 ‘쓰기’(2.4 글쓰기와 연애편지의 시대)의 붐은 오늘날 인터넷상에서 그 새로운 형태를 만날 수 있다. 당시 ‘소설’ 작가에게 보낸 독자들의 편지는 오늘날 영화나 TV 드라마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신들의 감상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시청자의 글 올리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그것이 종이감이 아닌 모니터라는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 전달된다는 사실 이외에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사회적 글 ‘쓰기’의 붐물이 터져 나오게 된 근원적인 동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의 외적 조건이 문자 해독층의 확대라면 그 내적 동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 말이다. 지금도 인터넷상에는 각각의 분야에서 소위 ‘논객’이라 불리는 강호의 고수들이 활거하고 있다. 그들은 직접 수많은 독자와 만날 수 있으며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하다. 자신의 글을 읽는 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정투쟁에서 심리적 우월감을 맛볼 수도 있다. 당시의 글 ‘쓰기’에 대한 일반인의 열망은 어떤 만족감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을까?

또 하나 이 책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국면들이 궁금해진다. 글쓰기의 고통을 덜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해 주는 매뉴얼로서 《문장대백과사전》과 보다 격조 있는 글쓰기를 위한 최남선의 《시문독본》이나 이태준의 《문장강화》 등의 출간을 보면 많은 이들이 글쓰기의 어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지임을 반영한다. 책읽기의 ‘즐거움’이 아닌 ‘괴로움’, 그리고 글을 쓰고자 하는 이들의 열정과 대비되는 글쓰기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의 단면들은 추적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새로운 호기심이 발동한다.

끝으로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하여 출간한 이 책은 학술서적의 대중화란 방식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시도로 여겨진다. 최근 인문학의 고사를 걱정하는 상황 속에서도 비교적 활발하게 신진연구자들에 의한 연구 성과들이 출간되고 있다. 문제는 그것이 대개 일반독자들이 근접하기 어려운 딱딱한 논문의 형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학술적 연구성과가 대중들과 만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독자들의 인문학적 소양에 대한 열망은 해소될 통로가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근대의 책읽기》는 바람직한 형태로 탈바꿈에 성공한 듯이 보여진다. ■

이 글을 쓴 홍재범은 1966년 경기도 동두천에서 출생하여 서울대 및 동 대학원 졸업하고 1930년대 한국 대중비극에 관한 논문으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미추연극학교와 국립극단 연수단원을 거쳐 현재 서원대 미디어창작과 전임강사로 재직하면서 한국 극예술의 생산과정에 대한 연구와 배우로서 연기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 연기용어에 대한 고찰> 등 십여 편이 있으며, 저서로는 《한국 대중비극과 근대성의 체험》(박이정, 2002)이 있다.